

# '보이콧 재팬'...추석연휴 여행지 日 지고 동남아 뜬다

### 제주항공, 동남아 노선 예약률 80%...일본 60%

### 짧은 연휴 이용 근거리인 일본 찾던 과거와 대조

일본 여행 보이콧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다음달 추석연휴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동남아 여객 예약률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는 경색된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감소세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노선을 잇따라 감축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 노선에 대한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추석연휴(12~15일) 제주항공의 항공편 예약률은 동남아 노선이 평균 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타키나발루는 90% 후반, 나트랑과 비엔티엔은 90% 초반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60% 초반의 예약률을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추석연휴를 포함, 9~10월 동남아 노선 예약률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기준 제주항공의 9~10월 동남아 노선 예약자 수는 38만4900명으로 전년 대비 58.3% 늘었다.

이스타항공 역시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예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13일 항공편 기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85%, 중국, 대만 등 동북아 80%, 일본 65%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에어부산은 11~16일 항공편 기준 동남아(64%), 중국(59%), 일본(48%) 순으로 예약률이 높았다. 에어서울은 11~13일 기준으로 동남아 노선이

60~80%로 예약률이 가장 높았고, 일본은 40~50% 수준이었다.

항공업계에서는 동남아 노선 예약률이 높은 이유로 줄어든 일본행 수요가 동남아 노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선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일본 수요가 많이 줄었다"며 "과거 짧은 연휴기간을 이용해 근거리인 일본을 찾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추계치에 따르면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 수는 총 56만1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장기화됨을 보이며 따라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제 항공사 8곳이 공급 축소를 결정한 일본 노선은 60개가 넘는다. 이에 항공사들은 잇따라 동남아 노선 증편을 추진하는 등 일본 노선

감축으로 생긴 공급력을 동남아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먼저 제주항공은 오는 9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천~코타키나발루·마카오·가오슝·치앙마이행 노선을 주1회에서 주4회까지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17일에는 대구~세부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에어서울은 오는 10월1일부터 인천~다낭 등 동남아 노선을 대상으로 주간 스케줄 증편을 결정했다. 기존 야간 편만 운항했던 노선에 아침 출발 스케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제재로 신규 취항이 막힌 진에도 일본 노선을 감편하는 대신 동계시즌에 맞춰 동남아 노선 증편을 검토 중이다. 티웨이항공 등 다른 LCC도 동남아 노선 확장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항공사(FSC)도 동남아 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0월 27일부터 인천~클락 노선을 신규취항



하버 인천-다낭 노선은 7회 증편해 주 21회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 인천-치앙마이·발리 노선도 4회 늘려 주11회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도 9월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7회에서 주14회로 증편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외에 동남아노선에 대해서도 증편을 적극 검토 중이다. 뉴스1

## 2030은 '유료 넷플릭스' 보고 5060은 '무료 유튜브' 본다

젊은 2030 세대는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은 무료 콘텐츠 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현황: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8세에서 24세 이용자들은 유료 콘텐츠 이용 비율이 34.5%로 전 세대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SDI는 OTT의 대표적인 넷플릭스를 위시한 유료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들이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월정액료를 지불하고 구독하는 유료 콘텐츠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유료 콘텐츠 이용 비율이 현저히 낮아 1.2% 수준에 그쳤다. 주로 무료로 제공되는 유튜브 등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비율이 10%에 근접했음에도,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체 세대별로 보더라도 대체로 모든 콘텐츠 유형에 대해서 중장년층(45~55세), 고령층(55세 이상)에 비해 젊은층(18~24세, 25~34세)의 유료 서비스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년층(35~54세)에 비해 젊은 세대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18~34세의 젊은 세대는 가까운 디지털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하고 즐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고령층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원인이 단순히 고령층이 디지털 콘텐츠 비용 지불에 미온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KISDI는 강조했다.

5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적 이유로 디지털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젊은층 대상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등 콘텐츠 다양성 부재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사적 등록이나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가 채택하고 있는 '지불방식'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 유료 콘텐츠 이용이 저조할 수도 있다.

## '리빙' 키우는 백화점...신세계, 광주점에 '생활 전문관' 선보여



신세계백화점은 '리빙' 분야를 감양이 중요시되면서 '집 꾸미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26일 밝혔다. 일과 가정의

광주신세계는 지난 23일 생활 전문관을 새롭게 선보였다. 그동안 지하 1층 식품관 옆에 선보였던 생활매장을 8층으로 옮겨 층 전체를 전문관으로 재단장했다.

면적은 2배 넓어진 815평 규모다. 입점 브랜드 역시 71개로 1.5배 늘었다. 광주신세계는 '호남 1번지'에 걸맞은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80평 규모의 '삼선전자 프리미엄샵'을 비롯해 보스, 프리츠한센, 나무지 등 고급 가구 브랜드도 들어섰다.

매장 구조도 마치 아파트처럼 꾸며 차별화했다. 브랜드별로 매장을

나열하던 기존 방식 대신 거실, 침실, 부엌, 프리미엄 가전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맞는 가구 및 소품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앞서 신세계는 핵심 점포에 생활 전문관을 잇달아 선보이며 리빙 분야를 강화해왔다. 2016년에는 강남점에, 2017년엔 부산 센텀시티점에 생활 전문관을 열었다.

손문국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 부사장은 "최근 국내 유통 트렌드를 보면 주거 환경에 지갑을 여는 선진국형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눈높이가 높아진 고객들을 위해 생활 전문관을 확대하고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 9월 '8자리 번호판' 시행하는데...주차장 미인식 혼란 불가피

현행(페인트식)	신규 번호판(페인트식 또는 필름식, 선택가능)
52가 3108	123가 4568
	2019년 9월 시행
	123가 4568
	2020년 7월 시행

다음달부터 현행 7자리인 자동차 번호판이 8자리로 바뀌지만 일부 공공기관, 소핑몰, 주차장 등에서 아직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비사

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를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돼 8자리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소핑몰이나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로는 새로운 번호판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카메라 업데이트를 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공사, 소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만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이달 말까지 약 85% 정도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신규 번호판 배부시 전국 220여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